

2020
고3 5모

2020년 시행 고3 5월 학평 국어 정호승 허물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느티나무 등치에 **매미 허물(시적 대상)**이 붙어 있다
바람이 불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착 달라붙어 있다(매미 허물의 모습)(시적 화자가 관찰한 시적 대상의 특성)
나(시적 화자)는 허물을 떼려고 손에 힘을 주었다(매미 허물에 대한 화자의 행위)
순간(한 행이 한 단어로 이루어짐→해당 내용에 집중하게 됨)
죽어 있는 줄 알았던 허물이 갑자기 몸에 힘을 주었다(시적 화자가 허물을 떼려고 손에 힘을 준 다음의 변화)
내(시적 화자)가 힘을 주면 줄수록 허물의 발이 느티나무에 더 착 달라붙었다(시적 대상의 특성)
허물은 허물을 벗고 날아간 어린 매미를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추측)
 허물이 없으면 매미의 노래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시구의 반복)**
나(시적 화자)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허물의 힘에 놀라(시적 화자의 심리)
 슬며시 손을 떼고 **집으로 돌아와(공간의 이동) 어머니(시적 화자가 매미의 허물과 동일시하는 대상)**를 보았다
 팔순의 어머니가 무릎을 곧추세우고 걸레가 되어 마루를 닦는다
 어머니는 나의 허물이다
 어머니가 안간힘을 쓰며 아직 느티나무 등치에 붙어 있는 까닭은
아들이라는 매미 때문이다(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 핵심 정리

- 갈래 : 현대시, 서정시
- 성격 : 사색적, 관찰적
- 주제 : 자연물을 관찰하면서 깨닫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 특징
 - (1) 자연물을 통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림
 - (2)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 (3)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나타남
 - (4)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 (5) 느티나무 등치에서 집으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남

▣ 작가 소개 : 정호승

1929년 충주공립보통학교(현 교현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等普通學校)에 입학하였다. 중앙고등보통학교 재학시 좌경서적을 읽다가 발각되어 정학처분을 몇 차례 당하고는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말았다.

1935년 서울로 다시 올라와 조선문학사를 열어 문예지 『조선문학』을 지봉문(池奉文)·이무영(李無影) 등과 함께 간행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에 기울어져 8·15광복 직후, 남로당에 입당하였고, 남북협상차 북행하는 김구(金九)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청주교도소에 1년간 수감되기도 하였다.

출감 이후, 줄곧 도피생활을 하다가 한국전쟁을 맞게 되었다. 그때 그는 고향인 충주에서 예술동맹위원장직을 맡아 작경활동을 하다가 월북하였다.

그의 시작활동은 1939년 조선문학사에서 간행된 시집 『모밀꽃』 이전까지 3~4년으로 국한되며, 시집 수록분을 포함하여 40편 가까운 시작품을 지상에 발표하였다. 그의 시 대부분이 향토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고향에서 보낸 성장기의 체험과 연관된다.

그의 이런 체험이 좌익성향과 결부되어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고발하는 시작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향토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념성의 원리가 훨씬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 시작 노트

어느 여름날, 나무둥치에 붙어 있는 매미 허물을 손으로 떼려다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툭 건드리면 떨어질 것 같았던 허물의 발이 나무둥치에 더 깊게 힘을 주었다. 허물은 왜 저토록 안간힘을 쓰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나는 그날 그 허물을 통해 날아간 매미와의 관계를 생각했다. 그리고 나와 어머니의 관계,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되었다.